

## ■ [공통: 문학·독서]

01. ① 02. ③ 03. ⑤ 04. ② 05. ③ 06. ② 07. ① 08. ③ 09. ⑤ 10. ⑤  
 11. ④ 12. ⑤ 13. ④ 14. ⑤ 15. ③ 16. ① 17. ① 18. ④ 19. ④ 20. ③  
 21. ④ 22. ① 23. ② 24. ⑤ 25. ① 26. ② 27. ④ 28. ② 29. ④ 30. ⑤  
 31. ③ 32. ④ 33. ② 34. ②

## [1~3] 독서

## [1~3] 독서, 『서양 미술사』 독서 일지

**지문해설** : 이 글은 고프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읽은 학생의 독서 체험을 담은 독서 일지이다. 학생은 이 독서 일지에서 미술에 대한 자신의 지식수준을 고려하여 고프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선택하였으며, 책의 서론과 책의 내용을 관련지어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고, 책의 제목과 목차를 바탕으로 순서를 정해 책을 읽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 독서 일지를 통해 독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주제]** 독서의 구체적인 방법

## 1.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1문단에서 학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미술사를 다룬 책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술에 대해 막 알아 가기 시작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알려진 고프리치의 『서양 미술사』를 읽었다고 하였다. 미술사에 대한 자신의 지식수준에 맞는 적절한 책을 선정해 읽은 것이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자신이 선정한 책이 고프리치가 쓴 『서양 미술사』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으므로 다수의 저자가 집필에 참여하였는지가 책 선정의 기준이라고 볼 수 없다. ③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에게서 추천을 받은 책인지를 고려하였다는 언급은 없으며, 미술에 대한 입문자도 이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④ 자신이 이전에 읽은 책에 대한 언급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최신 학술 자료의 활용 여부에 따라 책의 신뢰성을 판단하여 책을 선정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2.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학생은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받아들이며 『서양 미술사』를 읽었다고 하였다. 독자 자신의 경험과 저자의 경험을 연관 지으며 책을 읽는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2문단에서 책의 서론의 내용과 27장의 내용을 비교하여 읽으면서 저자의 관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책에서 내용상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

며 읽은 것이다. ② 3문단에서 본문을 읽기 전에 목차를 살펴보고 책이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책의 목차를 통해 책의 구성을 파악하고 책을 읽은 것이다. ④ 4문단에서 책이 7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임을 고려하여 하루하루 적당한 분량을 읽도록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천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책의 분량을 고려하여 독서 계획을 세워 책 읽은 것이다. ⑤ 3문단에서 책의 여러 부분 중에 이전부터 관심을 두고 있었던 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읽은 후 나머지 부분을 읽었다고 하였다.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읽을 순서를 정하여 책을 읽은 것이다.

### 3. 독서의 방법 추론

**정답해설 :** <보기>에서는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는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책의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바탕으로 책의 내용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에서 학생은 저자가 해설한 내용을 저자의 관점에 따라 수용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이 학생에게는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관점을 바탕으로 저자의 관점을 판단하며 책을 읽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학생이 책의 자료를 자의적 기준에 따라 정리하지는 않았다. 또한 <보기>는 저자의 관점보다 책을 읽는 사람의 관점과 주관을 강조하고 있다. ② 학생이 책이 유발한 사회·문화적 영향을 파악하지 않았다. 또한 <보기>는 책이 사회·문화적 영향을 유발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책에 담긴 저자의 해설에 저자가 속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비롯된 영향이 반영된다고 말하고 있다. ③ <보기>에서 예술 분야의 책을 읽을 때, 저자의 해설 외에도 다양한 해설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룬 책을 읽을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④ <보기>에서 저자가 구성한 방식대로 책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 [4~9] 주제 통합

#### [4~9] 사회, (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의 기능 / (나) 다양한 차원에서 광고의 영향

**지문해설 :** (가)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차별화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판매자가 이용하는 광고의 기능들을 설명하고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은 다수의 판매자가 유사하지만 차별적인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경쟁하는 시장으로,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이용한다.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기업의 이윤

---

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한편 광고로 인해 구매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상품이 차별화되었다고 느낄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충성도가 높아지면서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기 때문에 판매자는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의 기능과 광고의 경쟁 제한 효과

**지문해설 :** (나)는 광고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는 상품 정보의 노출을 통해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더 민감해지게 하거나 신규 판매자가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판매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나아가 광고로 인한 소비 촉진은 생산 활동을 자극하고 고용과 투자를 증가시키며, 이로 인해 다시 소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광고는 경제 전반의 선순환 효과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광고로 인한 소비와 생산의 촉진은 환경 오염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광고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주제]** 광고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4.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정답해설 :** (가)의 1문단에서는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구매자에 대해 누리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2문단에서는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누림으로써 판매자가 이윤을 볼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3문단에서는 광고를 통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낮춤으로써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고 경쟁을 제한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고가 판매자에게 중요한 이유와 판매자가 광고를 하는 이유, 즉 광고를 통해 얻으려는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 상품에 대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 유발, 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감소 등 광고가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발휘하는 효과가 크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광고의 개념을 정의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나)는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와 이로 인한 선순환 등 광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는 한편, 환경의 측면에서 이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견해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에 광고가 구매자에게 수용되는 과정이 제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매자가 광고를 수용할 때의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다. ⑤ (가)를 통해 구매자는 상품의 차별성이나 경쟁력, 상품에 대한 충성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을, (나)를 통해 구매자는 상품의 가격, 품질, 기존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욕구, 상품의 인기 등을 고려하여 상품을 선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광고와 관련된 제도나 그것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대체로 구매자는 상품의 물량이 많을 때보다 적을 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기 때문에 판매자는 독점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구매자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즉, 판매자는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 상품 공급량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를 감안해야 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3문단에 따르면, 독점적 경쟁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판매자도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광고를 빈번하게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로 인해 독점적 경쟁 시장에 신규 판매자의 진입이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②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독점적 지위를 누린다는 것은 상품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이며, 판매자는 공급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즉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판매자는 공급량을 조절하여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④ (가)의 2문단에 따르면,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판매자는 상품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를 가정할 때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 이윤이 지속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다. ⑤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하며, 이러한 차별적 인지와 선호를 통해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다.

## 6.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나)의 2문단에 따르면, 한계 소비 성향은 경제 전반의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증가하는 정도로, 양(+)의 값이어서 경제 전반의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광고는 '소비자의 구매 욕구 강화 → 소비 촉진 → 생산 활동 자극 → 고용이나 투자 증가 → 구매자의 소득 증가 → 소비 증가'의 과정을 통해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선순환의 정도는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질 때 마찬가지로 커지게 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광고는 쓰던 상품을 새 상품으로 대체하고 싶은 소비자의 욕구를 강화하고, 신상품이 인기를 누리는 유행 주기를 단축하여 소비를 증가시키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광고로 인해 촉진된 소비가 생산 활동을 자극함에 따라 고용 및 투자의 증가를 통해 근로자이거나 투자자인 구매자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광고로 인해 촉진된 소비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면 근로자의 노동, 기계나 설비 같은 생산 요소가 더 필요하게 되어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하므로 적절하다. ⑤ (나)의 3문단에 따르면, 광고로 인해 촉진된 소비와 이로 인해 촉진된 생산 활동은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 따라서 광고의 소비 촉진 효과는 경제 전반에 광고가 없는 상황에 비해 환경 오염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7.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가)의 3문단에 따르면,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차별성을 알려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지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어 ㉠이 일어난다. 한편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은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발생한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이므로, 가격에 예민해진다는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아질 때 ㉡이 일어날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

**[오답피하기]** ㉡ ㉠은 구매자가 특정 상품에 갖는 충성도가 높아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 상황이므로 판매자는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수월해진다. 한편 ㉡이 발생하면 구매자는 비싼 가격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하여 구매를 꺼릴 것이므로, 구매자가 다소 비싼 가격을 감수하게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이 발생하면 기존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되므로 신규 판매자의 시장 진입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윤에 이끌린 신규 판매자의 수는 장기적으로 증가하므로 시장 전체의 판매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이 발생하면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꿀 수 있어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하여 가격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면 신규 판매자도 가격 경쟁을 통해 시장에 진입하기가 쉬워질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은 상품의 차별성을 알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감소시킨 결과이므로 차별성을 알리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은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으면 더욱 촉진되므로, 신규 판매자의 광고가 의도대로 성공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은 적절하다. ㉤ ㉠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감소한 상황에서 나타나므로 가격에 대한 구매자의 민감도가 약화될 때 발생한다는 것은 적절하다. 한편 ㉡은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꿀 때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더욱 고려하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판매자가 경쟁 상품의 가격을 고려할 필요가 감소될 때 발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8. 구체적인 사례 적용

**정답해설 :** (가)의 2문단에 따르면, 이윤을 보는 판매자가 있으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약간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신규 판매자의 수가 장기적으로 증가한다. 또한 (나)의 1문단에 따르면, 광고를 통해 상품 정보에 노출된 구매자가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에 예민해질 때 경쟁이 발생하고, 신규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신상품을 쉽게 홍보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쟁이 촉진된다. 제시된 상황에서 ‘갑’ 기업은 여름 억제 비누 시장에 처음으로 진입하기 위해 광고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상품에 대한 정보 검색을 많이 하는 소비 집단을 공략하고자 제품 정보를 강조하는 광고를 기획 중이므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게 된다. ‘갑’ 기업이 이 광고를 통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여 단기적으로 이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윤에 이끌려 장기적으로 신

규 판매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 경쟁이 촉진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1문단에 따르면, 신규 판매자의 진입으로 더 많은 판매자가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된다. 따라서 광고가 ‘갑’ 기업의 의도대로 성공하여 해당 소비 집단이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를 소비한다면 기존 판매자인 ‘을’ 기업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될 것이다. ② (나)의 2문단에 따르면, 광고로 인한 소비 촉진 효과가 생산 활동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고용이나 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광고로 ‘갑’ 기업의 여드름 억제 비누 생산이 확대된다면 이 비누를 생산하는 공장의 고용이나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④ (가)의 1문단에 따르면, 판매자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자가 차별적으로 인지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고를 이용한다. 판매자가 광고를 통해 상품을 부각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과 많은 비용을 들인 광고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제시된 상황에서 ‘갑’ 기업은 제품 정보를 강조하되 비용은 최소화한 광고를 기획 중이므로, 많은 비용을 들이는 방법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차별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에 따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구매자의 상품 수요량이 변화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나)의 1문단에 따르면, 구매자가 가격에 민감하게 수요량을 바꾼다면 판매자 간 경쟁이 촉진되고 각 판매자의 독점적 지위는 약화된다. 이 광고가 ‘갑’ 기업의 신제품을 포함하여 여드름 억제 비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높인다면, 구매자는 여드름 억제 비누의 가격에 더욱 민감해질 것이므로 ‘갑’ 기업은 자사 제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없을 것이다.

## 9.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의 ‘들어가다’는 ‘어떤 일에 돈,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이다.’의 의미로 쓰였다. ‘투입(投入)되다’는 ‘사람이나 물자, 자본 따위가 필요한 곳에 넣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므로, 문맥상 ‘들어가므로’를 ‘투입(投入)되므로’와 바꿔 쓸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반입(搬入)되다’는 ‘운반되어 들어오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② ‘삽입(插入)되다’는 ‘틈이나 구멍 사이에 다른 물체가 넣어지다.’ 또는 ‘글 따위에 다른 내용이 넣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③ ‘영입(迎入)되다’는 ‘환영을 받으며 받아들여지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④ ‘주입(注入)되다’는 ‘흘러 들어가도록 부어져 넣어지다.’ 또는 ‘기억과 암기가 주로 되어 지식이 넣어지다.’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10~13] 독서, ‘반자유의지 논증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

**지문해설** : 이 글은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에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소개하고, 이어서 반자유의지 논증에 관한 비판적 입장의 주장과 그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임의의 선택이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전제하에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하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결론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주제]** 반자유의지 논증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의 주장 및 근거

10.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이때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였으므로 반자유의지 논증이 임의의 선택이 선결정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제시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만 지나지 않으며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1문단에 제시된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즉 인간의 선택은 뇌라는 물리적 실체에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다. ③ 1문단에 제시된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즉 인간이 물리적 실체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④ 1문단에 제시된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인간 결정의 원천이다. 즉 인간의 선택이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므로 비물리적 실체가 하는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다.

11. 내용의 인과관계 파악

**정답해설** : 어떤 선택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이 있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는 의미인 ㉠의 산물일 수 있다. ②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하는 상황에서 그 선택이



---

선결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㉔가 있을 수 있다.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을 한 사람은 그 선택의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㉓ 어떤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어 있는 그렇지 않은 '내가 하고자 원했던 것을 했다'면 그 선택은 ㉔의 산물일 수 있다. ㉕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그 선택의 선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㉔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그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지도 않다면 어떤 선택이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그 선택을 한 사람에게 ㉔가 있을 수 있다.

## 12. 생략된 내용 추론

**정답해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무작위로 일어난 어떤 선택은 내가 선택의 주체여야 하고 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자유의지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이 점을 이유로 들어 ㉔과 같은 주장을 한 것이다.

정답 ㉕

**[오답피하기]** ㉑ 유물론적 인간관에서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며,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반자유의지 논증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㉔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㉒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택의 주체가 '나'일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들어 ㉔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㉓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는 그렇지 않은 어떤 선택이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의 산물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㉔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㉔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도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㉔의 주장을 한 것은 아니다.

## 13. 글에 드러난 관점, 내용 비판

**정답해설 :** <보기>에서 H의 실험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 즉 인간의 선택이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에서의 다른 신경 사건과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으로, 인간의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는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 입각하였을 때,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이 부인될 수 있으며,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



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질 것이다. ②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H의 실험은 선결정 가정과 관계된 것으로,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고 해서 ㉠이 무작위 가정을 참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다.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결정이 선결정되어 있다는 가정이 맞지 않게 되므로 선결정 가정은 참이 아닐 수 있다. ⑤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인간의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 [14~17] 독서

##### [14~17] 기술, ‘메타버스(metaverse)’의 몰입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기술

**지문해설 :** 이 글은 ‘메타버스’에서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감각 전달 장치는 가상 공간의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며,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인 HMD는 사용자의 양쪽 눈에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하여 이를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체감을 느끼게 한다. 물체를 접촉하는 것과 같은 감각 반응을 사용자의 손에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는 가상 현실 장갑을 이용한다. 가상 현실 장갑은 아바타가 만지는 감각을 사용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손가락과 팔의 움직임에 따라 아바타를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한편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여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기술로 가상 현실 트레드밀과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있다. 전자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360도 방향으로 사용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바닥의 움직임을 지원하는 장치이며, 후자는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동작 추적 센서,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과 회전 속도를 측정하는 관성 측정 센서, 물체 간에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센서로 이루어져 있다. 트레드 밀의 움직임은 사용자의 이동 동작에 따라 변경되기도 하지만,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되기도 한다. 이렇게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 장면이 변경되어 사용자의 현실감을 더 높일 수 있다.

**[주제]** ‘메타버스’에서 사용자의 몰입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는 기술들

---

#### 14.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가상 현실 장갑은 가상 공간에서 물체를 접촉하는 것처럼 사용자의 손에 감각 반응을 직접 전달하는 장치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만지는 가상 물체의 크기, 형태, 온도 등을 사용자가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용자의 감각 반응을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므로 가상 현실 장갑을 착용해도 상호 간에 감각 반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1문단에 따르면, 사용자는 감각 전달 장치를 통하여 가상 공간을 현실감 있게 체험할 수 있다. 또한 3문단에 따르면, 사용자는 공간 이동 장치인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현실감 높은 체험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감각 전달 장치와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가 메타버스에 몰입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 따르면, 공간 이동 장치는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여 사용자가 몰입도 높은 메타버스를 체험하게 해 준다. ③ 2문단에 따르면, HMD는 시각을 전달하는 장치로 사용자의 양쪽 눈에 시차가 있는 영상을 전달한다. 사용자는 전달된 영상을 뇌에서 조합하는 과정에서 공간과 물체의 입체감을 느낄 수 있다. ④ 1문단에 따르면, 감각 전달 장치는 사용자를 대신하는 아바타가 보고 만지는 것으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장치이다.

#### 15. 중심 내용 파악

**정답해설 :** [A]에 따르면,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가 경사로를 만나면 가상 현실 트레드밀 바닥의 기울기가 변경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하며, 사용자의 뛰는 힘을 감지하는 것은 압력 센서이다. 따라서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뛰는 힘을 측정할 수 없다. ②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가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트레드밀의 바닥을 제어한다고 하였다. 반면 HMD에 표시되는 가상 공간의 장면은 사용자의 움직임이나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변경된다고 하였으므로, HMD는 가상 현실 트레드밀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드밀의 작동 변화에 따라 변경된 장면을 표시하는 역할을 담당함을 알 수 있다. ④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아바타의 동작에 따라 사용자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모션 트래킹 시스템이 감지한 사용자의 동작 정보에 따라 사용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맞춰 트레드밀의 움직임이 변경되기도 하고, 아바타가 존재하는 가상 공간의 환경 변화에 따라 트레드밀 바닥의 진행 속도 및 방향, 기울기 등이 변경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바타가 이동 방향을 바꾸면 사용자의 이동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16. 구체적 사례 적용

**정답해설 :** 4문단에서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센서라고 설명하였고, <보기>에서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라고 설명하였으므로 키넥트 센서가 가상 공간에 있는 물체들 간의 거리를 측정하여 입체감을 구현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4문단에 따르면, 모션 트래킹 시스템은 사용자의 동작에 따라 아바타가 동일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화하는 시스템이며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하는 동작 추적 센서는 모션 트래킹 시스템을 구성하는 센서 중 하나이다. <보기>에서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라고 하였으므로 키넥트 센서가 확보한 사용자의 춤추는 동작 정보를 바탕으로 아바타의 춤추는 동작이 구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 따르면, 관성 측정 센서는 사용자의 이동 속도 변화율 및 회전 속도를 측정하며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한다. <보기>에 따르면, 키넥트 센서는 동작 추적 센서의 하나이므로 키넥트 센서와 관성 측정 센서를 모두 이용하면 사용자의 걷는 자세 및 이동 속도 변화율을 파악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키넥트 센서는 <그림>과 같이 신체 부위에 대응하는 25개의 연결점을 선으로 이은 3D 골격 이미지를 제공한다. 그런데 얼굴 표정은 이 골격 이미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얼굴 표정 변화를 아바타에게 전달할 수 없다. ⑤ 적외선 카메라와 RGB 카메라는 동작 추적 센서인 키넥트 센서를 이루고 있다. 4문단에 따르면, 동작 추적 센서는 사용자의 동작을 파악한다. 따라서 적외선 카메라가 제공하는 입체 이미지와 RGB 카메라가 제공하는 컬러 이미지로부터 도출된 골격 이미지는 사용자의 동작 정보를 파악하는 데 사용됨을 알 수 있다.

## 17. 단어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와 ‘그 연주자는 피아노를 언니의 노래에 정확히 맞추어 쳤다.’에 쓰인 ‘맞추다’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③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의 의미로 쓰였다. ④ ‘일정한 수량이 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⑤ ‘둘 이상의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의 의미로 쓰였다.

[18-21] 고전산문 - 작자 미상, '배비장전'

**지문해설** : 이 작품은 위선적 인물인 배 비장을 통해 권력층을 풍자하는 조선 후기 판소리계 소설로, 4·4조의 율문체, 해학적 상황 설정과 같은 판소리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제주에 부임한 배 비장이 홀로 깨끗한 척하다가 기생 애랑과 방자의 계교에 속아 망신을 당한 후, 도망치듯 제주를 떠나려고 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그려 내고 있다. 지배 계층의 허세에 대한 풍자와 조롱을 통해, 신분 질서가 혼란해진 시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주제]** 위선적 양반 계층에 대한 풍자와 조롱

18. 작품의 내용 이해

**정답해설** : '사공'은 '부인'이 혼자 빌린 배이기에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한 것이지, '배 비장'이 낯선 인물이라 경계하여 승선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계집'은 초면에 반말을 하는 '배 비장'의 태도를 양반답지 못하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며, 예의염치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계집'이 이름을 물었으나, '배 비장'은 '성명은 차차 아시지요마는'이라고 즉답을 피하며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다. ③ 당장 제주를 떠나기 위해 서울로 가는 배편을 찾는 '배 비장'에게 '계집'은 그날 저녁 해남으로 갈 배편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것에 대해 말해 주고 있다. ⑤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이라는 '배 비장'의 말에 '사공'은 '당신 정경이 불쌍하'다며 연민을 드러내고 해 진 후에 다시 오면 부인 몰래 배를 태워 주겠다고 말하며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19.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정답해설** : 반말로 하대하는 '배 비장'의 태도에 계집이 불쾌함을 표하자, '배 비장'은 '사과나 하고 다시 물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말공대를 얼마쯤 올려', '여보시오'라고 하며 계집에게 다시 말을 걸고 있다. 또한 '배 비장'의 '반말에 비위가 틀려' 자신도 역시 반말로 응대하는 사공을 보며, 배 비장은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를 하였'다고 하며 '어법을 고쳐' 사공을 '노형'이라 칭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 ㉡는 모두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배 비장'이 '여보게'라 하대하는 말에, 계집이 '대답도 아니 하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한 표현임을 알 수 있다. ㉡ '배 비장'이 자신의 물음에 대꾸도 하지 않는 계집을 보고, '분해서' '책망 겸' 물었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람'은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다. ㉢ '어이'라는 반말에 사공이 '비위가 틀'렸다고 했으므로, 이는 '배 비장'이 상대의

기분을 풀어 주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아니다.

## 20.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해설 :** 배가 ‘오늘 저녁 물에 떠’난다는 사공의 말을 듣고, 배 비장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이라며 자신을 배에 태워 줄 것을 사공에게 사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가 주인공인 배 비장이 당일에 제주도를 떠나기 위해 타려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배 비장은 부모의 병환 급보를 들었다고 꾸며 대어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를 타고 제주를 떠나려 한다. ② 배 비장을 태우기 위해 준비된 배가 아니라,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이 친정에 가기 위해 비싼 값을 주고 빌린 배이다. ④ 배 비장이 배를 타야 하는 급한 사정을 사공에게 말하고는 있으나 경제적 보상을 내세우지는 않았다. ⑤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는 배 비장이 행객들을 데리고 떠나기 위해 타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주를 떠나기 위해 혼자 끼어 타려고 하는 배이다.

## 21.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서울로 가는 배가 어제저녁에 다 떠났다는 계집의 말을 듣고, 배 비장은 ‘이 노릇을 어찌하여야’ 좋겠냐고 물으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는 난관에 처한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한 말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양반의 경직된 관념을 버리고 제주도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양반이’ 묻는데 ‘어찌하여 대답이 없’냐고 계집을 책망하는 것은 양반으로서 대우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자기 신분에 대해 우월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이라고 한 손 놓고 하대를’ 하였다는 데에서 배 비장이 지역과 신분에 따른 우월감을 드러내며 제주도 사람을 얕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배 비장이 양반이라는 우월감을 버리고 계집에게 사과를 하는 것은 물을 사람이 계집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배 비장은 사공을 하대하여 기분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해 ‘춘몽을 못 깨고 또 실수’했다고 말하며, 우월감을 갖고 있던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다.

## [22~27] 문학

[22~27] 현대소설 시나리오 복합 - (가) 오영수, ‘갯마을’ / (나)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지문해설 :** (가)는 갯마을에 대해 애정을 지닌 해순이라는 여인을 통해 갯마을 사람들의 삶의 애환을 그려 내고 있는 소설이다. 해순은 풍랑으로 인해 첫 남편인 성구를

---

않고서 물뿔을 입고 바다로 나가 식구들을 부양한다. 이후 두 번째 남편인 상수와 같이 산골로 가게 되는데, 그가 징용으로 끌려간 뒤 다시 바다로 가고 싶은 간절한 욕망을 느껴 갯마을로 되돌아온다. 이 작품에서 바다는 해순과 마을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삶의 근거와 의미를 마련해 주는 순수과 원형의 자연 공간으로서 형상화된다.

**[주제]** 바다에 대한 애착과 원시적이고 건강한 삶에 대한 희구

**지문해설 :** (나)는 원작 ‘갯마을’을 각색한 동명의 시나리오이다. 다양한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원작이 담고 있는 서민들의 삶의 애환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바다에 대한 애착과 원시적이고 건강한 삶에 대한 희구

## 22. 서술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서술자는 윤 노인 며느리의 말을 간접 인용하여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의 윤 노인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간접 인용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의 서술자는 이야기 외부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이야기 내부 인물이 자신의 내면을 진술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A]에 윤 노인 며느리의 회상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하고 있지는 않다. ④ [A]에서 서술자가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A]에 공간 변화에 따라 서술자가 달라지는 양상이나 사건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드러나 있지 않다.

## 23. 작품의 맥락 이해

**정답해설 :** ‘두 노인’은 기상 상태를 보고 폭풍우가 올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고기잡이로 떠난’ 사내들이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헤어진다. 이 상황에서 두 노인은 ‘그새 구름은 ~ 코를 찔렀다.’에 묘사된 자연 현상을 지각함으로써 ㉠을 환기한 뒤, ㉡에 비추어 그 자연 현상이 폭풍우가 올 징조임에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윤 노인은 아무래도 수상해서 박 노인을 찾아갔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두 노인’이 우연히 만났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두 노인’이 ‘그들의 경험’에 대해 직접 언급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두 노인’이 ㉢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고 이해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다. ③ ‘두 노인’이 폭풍우가 오는 상황의 대처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④ ‘올 것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다.’와 그 이후에 서술되는 내용을 고려하면 ‘두 노인’의 예측이 들어맞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대마도 쪽으로 갔지?”, “고기 떼를 찾아갔는데 울릉도 쪽이면 못 갈라고...” 등을 고려할 때 ‘두 노인’이 고깃배의 행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24.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B]에 아낙네들이 ‘아련한 돛배만 지나가도 괜히 가슴을 두근거리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때 ‘돛배’는 아낙네들이 마을의 사내들이 타고 나가 변을 당했을 것이라 짐작하는 ‘고등어 배’를 떠올리게끔 하는 대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낙네들이 ‘돛배’를 보며 혹시라도 ‘고등어 배’가 무사히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한 가닥 희망’을 떠올렸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는 있으나, ‘돛배’가 아낙네들에게 자신들의 희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폭풍우가 지나간 후 ‘고등어 배’가 돌아오지 않은 일은 ‘갯마을’ 사내들이 폭풍우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암시하므로, 마을 사람들이 겪게 되는 시련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후리막 주인’이 ‘신문’을 가져와 ‘출어한 많은 어선들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기사’를 읽어 주자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로 보아 ‘신문’은 마을 사람들이 기사의 내용을 ‘고등어 배’와 연결 지어 생각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닥친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도록 하는 매개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바다’는 폭풍우가 칠 때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시련을 주기도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활의 방편을 제공해 준다. 이런 점에서 ‘바다’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해순은 ‘세 식구가 먹고살아야’ 하기에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 일을 한다. 따라서 ‘물옷’을 입고 바다로 나가는 것은 삶을 지켜 나가려는 해순의 의지를 보여 주는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5.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정답해설 :** S#21에는 ‘해순’이 천둥, 번개가 치는 밤에 비에 젖은 채 성황당을 향해 숨이 차도록 달려가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남편이 고등어 배를 타고 나갔는데 폭풍우가 몰아치자 다급해진 마음에 성황당에 가서 기도라도 올리려는 것이다. 따라서 ‘해순’이 달려가는 행위는 기상 악화로 인해 다급해진 속내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S#22에서 ‘해순’은 당목 앞에 꿇어앉아 절을 한다. 이로 보아 ‘해순’이 비틀거리면서도 성황당에 오르는 것은 당목을 지키려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폭풍우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하기 위해서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③ S#22에서 ‘순임’은 성황당에 올라와 ‘해순’과 같이 절을 한다. 이로 보아 ‘순임’의 등장이 ‘해순’이 서낭님에게 기원하던 것을 멈추는 계기가 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S#25에서 ‘해순’과 ‘순임’ 외에도 몇몇 아낙이 모여 절을 하는데, 이들이 ‘해순’, ‘순임’과 갈등 관계를 형성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S#26에서 집을 나가는 ‘윤 노인’을 말리는 ‘순임’의 모습이 나타나 있을 뿐, ‘순임’이 ‘윤 노인’이 집을 나가는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26.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정답해설 :** S#18은 몽타주 기법으로 여러 장소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은 모두 폭풍우가 몰려오는 와중에 마을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을 보여 주는 것이어서, 상반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S#18은 ‘문을 열고, 하늘을 보’거나 ‘뛰어나와 바다를 보’거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인물들의 행동이 담긴 장면들을 연결하여, 폭풍우가 몰려와 어수선했던 마을의 분위기를 보여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S#24는 비바람으로 인해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장면을 제시하여, 배가 넘어가는 위험에 처한 성구의 절박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S#24는 성철이 ‘선미의 키를 잡’는 행위와 ‘이를 악무는’ 표정을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하여, 비바람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S#24는 ‘흔들리는 뱃사람들’, ‘파도에 쓰러지고’, ‘흔들림에 넘어지고’ 등과 같이 선원들의 위태로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배가 넘어가기 직전 배 안의 급박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 27. 작품의 변형과 재구성

**정답해설 :** (나)의 S#28에서 당목이 꺾이는 장면은 (가)에서 폭풍우로 인해 마을이 난장판이 된 ㉔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폭풍우로 인해 인물들 간의 믿음이 무너진 상황은 (가)에서도, (나)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나)의 S#14에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는 (가)에서 윤 노인과 박 노인이 만나 ㉔처럼 생각한 상황을 각색한 것으로, 이 대사를 통해 인물이 느끼는 위기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의 S#15~S#17에서 노목, 바위, 추향을 통해 갯마을과 바다의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은 (가)에서 ㉒로 묘사된 상황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도록 각색한 것으로, 자연의 위력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S#22는 해순과 순임이 성황당에 있는 상황을, S#25는 해순, 순임과 더불어 몇몇 아낙이 모인 상황을 각각 보여 준다. 이들은 (가)의 ㉔에 제시된 하나의 장면을 등장 인물의 수가 다른 두 장면으로 나누어 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S#28에서 밤 동안 비바람이 치는 모습과 S#29에서 아침에 파도가 잔잔해진 모습을 O.L. 기법으로 연결한 것은, (가)의 ㉔가 나타내는, 폭풍우가 몰려간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각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28~31] 문학

### [28~31] 현대시 - (가) 오장환, ‘종가’ / (나)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지문해설 :** (가)는 퇴락한 종가의 모습과 봉건적 위세를 잃고 살아가는 종갓집 영감님의 모습을 통해 유교적 봉건 질서가 무너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종가는 한 문중에서

만이로만 이어 온 집안인데, 이 작품 속 종가는 폐쇄적이고 암울한 형상으로 묘사되었다. 가족 구성원들이 분열된 상황과 어수선한 제사 분위기, 동네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과거와 달리 고리대금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현재의 퇴락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피폐해진 종가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종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주’를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고 희화화함으로써 종가의 허위적인 면을 풍자하고 있다.

**[주제]** 피폐해진 종가의 모습을 통해 바라본 봉건 질서의 몰락

**지문해설 :** (나)는 노래와 이야기의 관계를 통해 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다. 2~7행에서 처용설화와 처용가를 통해 노래와 이야기의 관계를 말하는데, ‘노래’는 ‘귀신’을 감복시키고, ‘처용의 이야기’는 ‘새로운 노래와 풍속’으로 이어져 후세에 전해진다고 보았다. 8~11행에서 화자는 현재를 ‘악보’가 사라진 시대로 인식하며, 이후 부분에서는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라고 하여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를 지향하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심장’은 감성, ‘뇌수’는 이성과 관련된 시어로 이해할 수 있다. ‘노래’는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지만 ‘이야기’는 덧난 상처를 다스리는 처방이라고 보아, 이상적인 시의 형태로 ‘노래’와 ‘이야기’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

**[주제]** 노래와 이야기가 조화를 이루는 시에 대한 지향

## 28.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을 지키어 주는 신주들’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주는 종가의 위계와 권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소재이다. 그런데 종가에서 평소에는 신주를 ‘곰팡이가 나도록’ 방치해 두다가 ‘제삿날’이 되면 ‘갑자기’ ‘제상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도록 하여 귀하게 대접한다. 종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신주를 희화화함으로써 종가에 대한 풍자적 태도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이 집의 지손들이’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간다는 것은,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간다는 구절과 연결되어 자손들이 대립하여 분열된 상태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가의 퇴락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종가의 번성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 없다. ③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는 것은 동네 백성들을 부당하게 억압하던 종가의 행위를 통해 봉건적 지배 질서의 불합리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종가의 부당한 위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종가의 위세에 대한 시기심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④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했다는 것은 무능력한 종가의 모습을 통해 종가의 허위적인 면을 풍자하는 것이므로 종가의 내력을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⑤ ‘종갓집 영감님이’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는 것은 무능력한 종가가 탐욕적인 방법으

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종가의 허위성을 풍자하고 있으므로, 종가에 대한 전망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 29.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B]에서 노래하고 싶은 시인이 ‘말 속에 은밀히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 것은 감동을 유발하는 ‘노래’의 성격을 회복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의 2~3행에서 ‘노래’는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할 정도로 상대를 감복시킬 만한 힘을 지닌 것으로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B]는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말’에 ‘노래’가 주는 감동을 붙여넣는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는 ‘노래’에서 ‘목청’을 떼어 내고 ‘가사’만 남은 상태가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 것이다. 따라서 ‘노래’와 ‘가사’의 융합이 가져온 결과를 보여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작품은 마지막 행의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에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을 이상적인 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 ‘노래’와 ‘이야기’의 결합을 형상화한 부분이나 이들이 결합되었을 때의 ‘단점’을 형상화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1행의 ‘노래’가 ‘심장’에 박힌다는 말로 보아, [B]에서 ‘시인’의 ‘말’ 속에 ‘심장의 박동을 골라 넣는’다는 것은 시인의 ‘말’에 ‘노래’가 연결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A]는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하는 힘을 보여 준 ‘노래’와 대비되는 ‘가사’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므로 ‘이야기’의 도입이 지닌 한계와 무관하다. [B]는 ‘노래’의 회복을 바라는 ‘시인’의 행위가 제시된 것이다.

## 30.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는 ‘지금도’ 이후에 제시된 ‘마을의 풍설’을 통해 ‘동네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던 종가에 대한 부정적 인상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나)는 ‘이제’ 이후에 ‘악보’가 사라진 오늘날의 ‘시집’을 제시함으로써 오늘날 ‘노래’의 성격이 약화된 ‘시’가 창작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지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는 ‘쨍쨍’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과거에 ‘동네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횡포를 일삼던 종가의 부정적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청각적 심상이 드러나는 ‘윙윙거리다’라는 표현을 통해 ‘종가’ 뒤뜰에 ‘달걀귀신’이 있다는 마을의 풍설을 제시하여 종가의 음산한 기운과 부정적인 인상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서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은 외부와 단절된 종가의 폐쇄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검은 기와집’은 색채 이미지를 통해 종가의 어두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가 ‘상처’를 ‘쉬이 덧나’게 만드는 한계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에서 ‘처용’이 부른 ‘노래’는 ‘귀신을 꿰어 엮드리게’ 만든다는 것을 통해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처용’에 대한

‘이야기’는 ‘새로운 노래와 풍속을 짓고 유전해 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통해 후세에 전해지는 성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한 것은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뜻하므로 이는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와 무관하다.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는 이 시의 4~5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닝닝거린다’와 ‘살아 나간다’라는 현재 시제형 표현을 통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의 어수선한 행동과 ‘작인들에게 고리대금을 하’는 ‘종갓집 영감님’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 시제의 사용은 <보기>에서 말하듯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결되도록 만든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동네 백성들’에게 ‘모말굴림도 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함으로써 종가의 부당한 횡포에 억압당하던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통해 종가가 지닌 봉건적 지배 질서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마지막 행에서 ‘뇌수와 심장이 가장 긴밀히 결합되길 바란다’라고 함으로써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기를 바라되, 상처를 덧나게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해 줄 이야기와의 결합을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는 ‘종가’에 얽힌 화자의 경험과 종가와 연관된 ‘동네 백성들’의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12~15행에서 ‘이야기’를 통해 ‘노래’가 주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닌 의미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 [32~34] 문학

[32~34] 고전 시가 - (가) 허난설헌, ‘규원가’ / (나) 작자 미상,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지문해설 :** (가)는 조선 시대의 규방 가사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절절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는 남편을 처음 만났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나이 들고 외로운 서글픈 상황에서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자신의 처지를 읊는 것으로 화제를 이어 가고 있다. 고사나 관용구를 인용하거나, 자신의 심정을 자연물에 빗대어 노래하는 등의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한스러운 심정을 절절하게 드러내 문학적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다.

**[주제]** 방탕한 생활을 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

**지문해설 :** (나)는 김천택이 편찬한 「청구영언」 말미의 만형청류에 포함된 사설시조이다. 임과 헤어진 후에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나 ‘개울에

섰는 버들'과 같은 외부 대상이 '흔덕흔덕', '흔들흔들'하는 모습에서 임과 헤어져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고 있다. (나)의 종장에서는 '후루룩 비쭉'하는 '입하고 코'를 제시하여,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슬픔을 분출하는 화자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시조 중에는 임과 헤어진 후의 그리움을 노래하며 해학적인 표현을 통해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둠으로써 이별에 대처하는 태도를 형상화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시조도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주제]** 임과 이별한 슬픔과 이별에 대처하는 태도

### 32.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A]에서는 '봄바람', '가을 물', [B]에서는 '겨울밤', '여름날' 등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A]는 세월이 빠르게 흐르는 상황에서 '설빔화안'이던 화자의 모습이 '면목가증'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B]는 계절이 바뀌는 상황에서 여전히 화자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한스러운 처지를 나타낸 것이므로,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A]에서는 '베오리', '복' 등 베틀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였는데, 화자는 이들 소재가 베를 짤 때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빗대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B]는 '차고 찬 제', '길고 길 제' 등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날씨가 추운 겨울과 해가 긴 여름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C]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와 '개울에 섰는 버들'이라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흔덕흔덕'과 '흔들흔들'이라는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⑤ [B]는 '겨울밤 차고 찬 제', '여름날 길고 길 제'와 '자최는 섯거 치고', '긋은비는 무슨 일고', [C]는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와 '개울에 섰는 버들', '바람 불 적마다 흔덕흔덕'과 '무슨 일 좇아서 흔들흔들' 등의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어구를 짝 지어 표현의 효과를 나타내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3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아무리 기다려도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남편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화자는 잠을 통해 꿈속에서 남편(임)을 만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현실에서는 화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선택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은 화자가 과거에 남편과 혼인했던 시절을 떠올리는 부분으로, 흐릿한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운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 아니다. ③ ㉠은 과거의 회상으로, 임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은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비롯된 행동으로, 임과의 이별을 망각한 것이 아니다. ④ ㉠은 이미

---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으로 볼 수 있지만 ㉠은 곧 일어날 일에 대해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 앞에 나오는 ‘삼생의 원업’, ‘월하의 연분’ 등을 통해 ㉡은 화자와 남편의 인연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꿈속에서라도 임을 만나보겠다는 재회의 갈망이 담긴 것으로, 화자가 재회의 필연성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은 아니다.

#### 3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의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공방(獨守空房)의 처지에 있는 화자가 자신이 연주하는 ‘벽련화 한 곡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처지를 한스럽게 토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뉘 귀에 들리소니’는 교감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음이 나타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실솔’은 화자의 슬픔을 투영한 자연물이므로,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소나무’의 모습과 임이 그리워 눈물과 콧물을 쏟아 내어 울며 ‘후루룩 비쭙’하는 자신의 모습에서 동질성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삼춘화류 호시절’은 봄날 좋은 시절의 아름다운 경치를 의미하는데, 화자가 여기에 대해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외부의 아름다운 정경과 화자의 내면이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의 ‘버들’은 화자가 그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의 내면과 대비되어 외부와의 단절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가)의 ‘긴 한숨 지는 눈물’은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는 표현이지만, (나)의 ‘후루룩 비쭙’하는 ‘입하고 코’는 화자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하여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선택: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② 37. ④ 38. ⑤ 39. ① 40. ② 41. ③ 42. ③ 43. ⑤ 44. ⑤  
45. ②

[35~36] 언어

[35~36] 우리말 음절 및 음절 구조에 대한 이해

**지문해설** : 이 글은 음절과 표기의 관계, 음절에 대한 관습적 오개념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음절이 발음의 단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발음을 기준으로 한 우리말 음절의 네 가지 유형을 분류하고, 표기 형태와 음절 유형의 일치·불일치 관계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끝으로, 우리말 음절 구조 제약에 대해 설명하며 이에 기인한 음운 변동과 그렇지 않은 음운 변동을 일부 사례를 통해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주제]** 한국어 음절의 특징과 음절 구조 제약

35. 음절의 이해

**정답해설** : ‘뭉’은 ‘[목]’으로 발음되므로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목’과 ‘뭉’은 ‘자음+모음+자음’의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싫증’은 ‘싫은 생각이나 느낌. 또는 그런 반응.’의 뜻을 나타내어 ‘싫다’와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싫증’의 ‘싫’은 하나의 의미를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은 사례에 해당한다. ② ‘북소리’와 ‘국물’이 각각 ‘[북소리]’, ‘[국물]’로 발음되므로 이는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나뭇잎’, ‘입새’는 각각 ‘[나문닙]’, ‘[입쌔]’로 발음되어 발음을 기준으로 하면 ‘닙-입’이 연결되지 않지만,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로 인식하는 관습에 따라 ‘잎-잎’으로 끝말잇기를 할 수 있다. ⑤ ‘북어’는 ‘[부거]’로 발음되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이며, ‘강변’은 ‘[강변]’으로 발음되어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36. 국어의 음운 변동

**정답해설** : ‘옷만 → 온만 → [온만]’에서는, ‘ㅅ → ㄷ’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ㄷ → ㄴ’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굳’의 ‘ㄷ’은 종성에 올 수 있으므로 ‘굳이[구지]’의 구개음화(교체)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③ ‘물약 → 물낙 → [물락]’에서는 첨가와 교체가 각각 한 번씩 일어나는데, 둘 다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④ ‘값도’가 [갑또]로 소리 나는 현상에서는 ‘ㅈ → ㄱ’으로 종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ㄷ → ㅌ’으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



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⑤ ‘끓는 → 할는 → [할른]’에서는 ‘ㄹㄷ → ㄹ’로 종성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는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ㄴ → ㄹ’로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 [37~39] 언어

#### 37. 파생어의 형성

**정답해설 :** ㉠에 쓰인 접사는 ‘-치-’, ‘-리-’, ‘-히-’, ‘-뜨리(다)’이다. ‘살리다’, ‘입히  
다’에 쓰인 접사는 주동사에 결합하여 사동사를 파생하지만, ‘밀치다’와 ‘깨뜨리다’에  
쓰인 접사는 강조의 뜻을 더할 뿐 사동사를 파생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에 쓰인 접사는 ‘-이’, ‘-음’, ‘-기’, ‘-개’인데, 이들은 각각 용언  
‘넓-’, ‘민-’, ‘크-’, ‘지우-’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한다. ② ㉢에 쓰인 접사는 ‘-이  
(다)’, ‘-대(다)’, ‘-거리(다)’인데, 이들은 각각 부사 ‘끄덕’, ‘출렁’, ‘반짝’에 결합하여  
동사를 파생한다. ③ ㉣에 쓰인 접사는 ‘-보’, ‘-꾼’, ‘-쟁이’, ‘-꾸러기’인데, 이들은  
모두 사람을 가리키는 의미의 단어를 파생한다. ⑤ ㉤에 쓰인 접사는 ‘-질’, ‘-끗-’,  
‘휘-’, ‘-기-’이다. ‘부채질’, ‘푹나물’에서는 접사가 명사 어근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  
생하며, ‘휘감다’, ‘빼앗기다’에서는 접사가 동사 어근에 결합하여 어근과 같은 품사인  
동사를 파생한다.

#### 38. 문장의 짜임

**정답해설 :** 관형사절 ‘동생이 찾아뵈려던’에는 객체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이 생략되  
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관형사절 ‘편찮으시던’에는 주체 높임의 대상인 ‘어르신’이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주어로 실현되었다. ② 관형사절 ‘고향에 계신’에는 주체  
높임의 대상인 ‘부모님’이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목적어로 실현되었  
다. ③ 관형사절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신’에서 ‘할아버지’는 주체 높임의 대상이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관형어에 포함되었다. ④ 관형사절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에  
는 객체 높임의 대상인 ‘할머니’가 생략되어 있다. 이 대상은 안은문장의 부사어로 실  
현되었다.

#### 39. 중세 국어의 문법

**정답해설 :** ‘ㄷ리’는 ‘들(달)+이’로 분석되는데, ‘들’이 자음으로 끝난 체언이기 때문  
에 주격 조사 ‘이’가 쓰인 것이다. 따라서 ‘ㄷ리’는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니다.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모음 ‘이’나 반모음 ‘ㅣ’로 끝난 체언 뒤에서 ‘∅’가,  
그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ㅣ’가 일반적으로 쓰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바불’은 ‘밥(밥)+을’로 분석되는데, 자음으로 끝난 체언 ‘밥’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쓰인 것이다. ㉠에서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 ‘을’ 또는 ‘을’이 쓰인다고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양성 모음 뒤에서는 ‘을’이, 음성 모음 뒤에서는 ‘을’이 쓰였다. 중세 국어의 목적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를/를’이 쓰이기도 했다. ③ ‘나뭇’은 ‘나모(나무) + ㅅ’으로 분석되는데, ‘나모’가 사물을 뜻하는 체언이기 때문에 관형격 조사 ‘ㅅ’이 쓰인 것이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앞 체언이 존대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거나 동물과 같은 유정물일 때에 ‘이/의’가 쓰이기도 했다. ④ ‘물로’는 ‘물(물) + 로’로 분석되는데, ‘물’이 ‘ㄹ’로 끝난 체언이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 ‘로’가 쓰인 것이다. 중세 국어의 부사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모음이나 ‘ㄹ’ 이외의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으로/으로’가 쓰이기도 했다. ⑤ ‘님금하’는 ‘님금(임금) + 하’로 분석되는데, ‘님금’이 존대 대상인 체언이기 때문에 호격 조사 ‘하’가 쓰인 것이다. 중세 국어의 호격 조사로는 이 외에도 존대 대상이 아닌 체언 뒤에서 ‘아/야’가 쓰이기도 했다.

#### [40~43] 매체

#### 40.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정답해설 :** (나)에서 ‘카드 1’과 ‘카드 2’는 각각 (가)에 제시된 ‘○○ 기관 보고서’와 ‘○○ 기관 통계 자료’라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정보의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자료를 수용할 때는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는 청소년 사회 참여의 개념, 청소년 사회 참여에 관한 보고서 내용과 통계 자료, 전문가의 견해와 참여 학생의 소감 등이 제시되어 있다. 다양한 이론을 종합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나)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실태와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을 다루고 있다.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④ (가)와 (나)에서 예상되는 반론에 반박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⑤ (가)는 보고서 내용과 통계 자료, 전문가의 견해와 참여 학생의 소감 등을, (나)에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실태와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확산되기 어려운 이유,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작성자의 주장은 나열되어 있지 않다.

#### 41. 정보 전달과 설득

**정답해설 :** (가)에서 청소년이 기관 중심의 사회 참여를 선호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카드 3’에서 기관의 이미지를 청소년의 이미지보다 더 크게 그린 것은, 현재의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이 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에서는 ‘청소년도 사회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청

소년이 88.3%에 달한다고 하였다. ‘카드 1’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의 인식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청소년이 말하는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② (가)의 2문단에서는 사회 참여 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1%에 그쳤다고 하였다. ‘카드 2’에서는 이 통계 자료를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청소년의 사회 참여 비율이 적은 문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3문단과 4문단에서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을 기관 중심의 참여와 청소년 주도의 참여로 나누어 진술하고 있다. ‘카드 4’에서는 악수하는 이미지를 통해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의 두 가지 유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⑤ (가)의 4문단에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활동의 필요성과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에 관한 김◇◇ 교수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카드 4’에서는 김◇◇ 교수의 말 중에 청소년 사회 참여 활성화의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만 문구로 제시하고 있다.

#### 4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사회 참여 활동 기회가 부족하-’와 ‘참여가 확산되지 못하고 있-’이 연결 어미 ‘-여’로 이어져 있다, 여기서 앞 절의 내용은 뒤 절 내용의 ‘까닭이나 근거’에 해당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에서는 의문형 종결 어미 ‘-는가’를 활용하여 해당 기사문의 화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의문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에서는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음’을 나타내는 부사 ‘무려’를 사용하여 88.3%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수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에서는 피동 표현 ‘-어지다’를 활용하여 행위의 주체, 즉 ‘누가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가’보다는 ‘사회적 분위기’라는 행위의 대상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⑤ ㉠에서는 간접 인용격 조사 ‘고’를 통해 김 모 학생의 발화를 전달하고 있다.

#### 43.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해설 :** (나)에서는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카드 B’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과 ‘우리 학교 앞 신호등 설치 건의’와 같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나)에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카드 A’에 제시된 설문 조사 자료는 학생들이 사회 참여 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보여 주는 것이므로 청소년의 사회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카드 3’과 ‘카드 4’를 통해 추측할 수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주도의 사회 참여 기회가 부족한 이유 또는 그 해결 방안 등의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또한 ‘카드 A’는 우리 학교 학생 중 사회 참여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묻은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사회 참

여 이유를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카드 3'에서는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청소년 사회 참여 확산이 어려운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나)에서 사회 참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카드 B'의 내용도 이와 관련이 없으므로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44~45] 매체

#### 4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정답해설 :** 누리집은 매체의 특성상 매체 자료의 생산자와 수용자 사이의 소통이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웹툰의 독자와 웹툰 제작자가 이미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직접 묻고 답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하진'의 첫 번째 발화 중 '학생들 사연을 받아서 연재하니'와 네 번째 발화 중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를 통해 웹툰 제작자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사연 신청자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가)의 '20□□. 08. 12' 대화 내용 중 '하진'과 '우주'의 발화를 통해 웹툰 제작자가 댓글이나 별점을 통해 독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파도'와 '솜사탕'이 주고받은 댓글의 내용을 통해 웹툰의 독자가 댓글로 서로 공감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에는 웹툰 끝에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를 클릭하면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을 통해 웹툰 독자가 하이퍼링크를 클릭해 웹툰 제작자가 지정한 '사연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4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정답해설 :** (가)에서 '하진'은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비교하기 좋게 양쪽으로 배치해 보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였고, '우주'는 '하진'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나)에서 화면을 세로로 분할한 것은 한 달 동안 두 사람이 느꼈을 감정을 비교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화면을 세로로 분할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에서 '주혁'은 '장면이 세로로 이어지니까, 이것 고려해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장면이 제시되는 세로 방향으로 숫자를 달리한 달력 그림들을 배열하여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였다. ③ (가)에서 '우주'는 '친구 사이가 점점 멀어지는 건 둘 사이의 간격으로 보여 줄게.'라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물들 사이에 여백을 두어 점차 간격이 벌어지게 그렸다. ④ (가)에서 '하진'은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에서 드러나게 해야겠지?'라고 하였고, '주혁'은 '사연을 보낸 학생이 느낀 감정들은 다른 방법으로

---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해 달라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친구의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만으로 표현하되, 사연을 보낸 학생의 속마음은 표정이나 몸짓뿐만 아니라 글로도 적어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⑤ (가)에서 '하진'은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듣고 싶다고 했으니,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과 문구를 활용해서 유도해' 달라고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나)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말풍선을 의도적으로 비우고, 말풍선 밑에 댓글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제시하였다.